



# 캐나다, 녹용·정액 수입재개 요청

— 문의, 북미지역 양록 수입재개 불가 답변 —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으로의 녹용, 정액 및 양록 생산물 수출을 금지당하고 있는 캐나다가 이의 해제를 신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26일 본회를 방문한 캐나다 양록협회 서지 뷰이(Serge Buy) 사무총장과 캐나다 수의검역원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간의 CWD 컨트롤 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설명하고, 생산물의 안전성을 캐나다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수입금지 해제를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이에 대해 김수근 본회회장은 “북미지역에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CWD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미국 위스콘신 지역에서 발병하는 등 북미지역의 CWD 근절 프로그램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 좀더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수근 회장은 “지난해 97년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엘크에서 CWD가 발생, 한국 양록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외래성 질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한치의 허점도 보일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캐나다 정부기관인 수의검역원 소속 퍼트(B.L.Pear) 박사는 북미지역에서의 CWD 발생과정과 최근까지의 현황, 감염 추적 및 테스트 프로그램 실시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그는 캐나다 정부 및 사슴농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정부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방역 전문가인 머로우(Alain Moreau) 수의사는 “CWD와 유사한 질병인 BSE도 정액을 통해서만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수역기구(OIE)도 공식 인정했다”고 소개하고, 사슴정액의 거래 및 수출시 캐나다 정부가 비감염을 보증할 수 있으므로 한국과의 무역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양록농가 대표로 방한한 서지 뷰이 사무총장은 “한국과 캐나다 모두 CWD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생산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전통시장 및 소비형태를 존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액뿐만 아니라 녹용의 수입재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양국 양록업 발전을 위한 정기적 회합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근 본회 회장은 “북미지역 양록생산물의 수입금지 해제는 한국정부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현 상태에서 수입재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양국간 시장 개척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정기적 회합 제의는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국양록**